



아름다운 것은 자꾸 생각나

신현이 글 | 김정은 그림
문학동네 | 초등 3학년 이상

여성가족부 나다움어린이책 '공존' 부문 선정
안산 올해의 책

활동1 아름다운 낱말 쓰기

책 속의 인물과 사건을 떠올려 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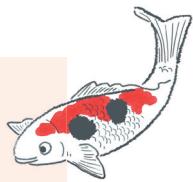
떠오르는 낱말을 차근차근 빈칸에 써 보세요.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면 책을 다시 펼쳐 보아도 좋아요.

책 속에는 아름다운 낱말이 아주아주 많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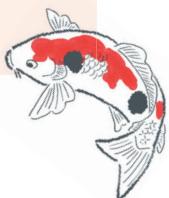
비

잉어



물주름

빗과 고무줄



활동2 내 마음 들여다보기
- 콕콕, 심장을 두드리는 작은 목소리



홍자 선생님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사랑에 빠지면 다른 이의 속말이 들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속말을 막아 주는 별 목걸이를 걸었는데도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아기 손가락처럼 작고 부드러운 속마음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속마음을

홍자 선생님에게만 전해 보아요. 기쁨이 온몸 가득히 차오를 거예요.

홍자 선생님께

활동3

내가 아는 아름다운 것 들려주기 - 겪은 일과 관련지어 글 읽기

나영이와 보경이는 흥자 선생님과 잉어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꿈에 나오는구나.”

“아름다운 것은 자꾸 생각나는 거구나.”

여러분에게는 자꾸만 생각나는 아름다운 순간이 있나요?

꿈에서도 품에 꼭 안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나요?

내가 좋아하는 장소, 가까운 사람이나 함께 사는 동물일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잊고 지낸 기억, 언젠가 찾아올 기쁜 순간일 수도 있지요.

글로 적거나 그림으로 그려 보고 다음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내가 찾은 아름다운 것을 소개할게.

아름다운 것은 _____

